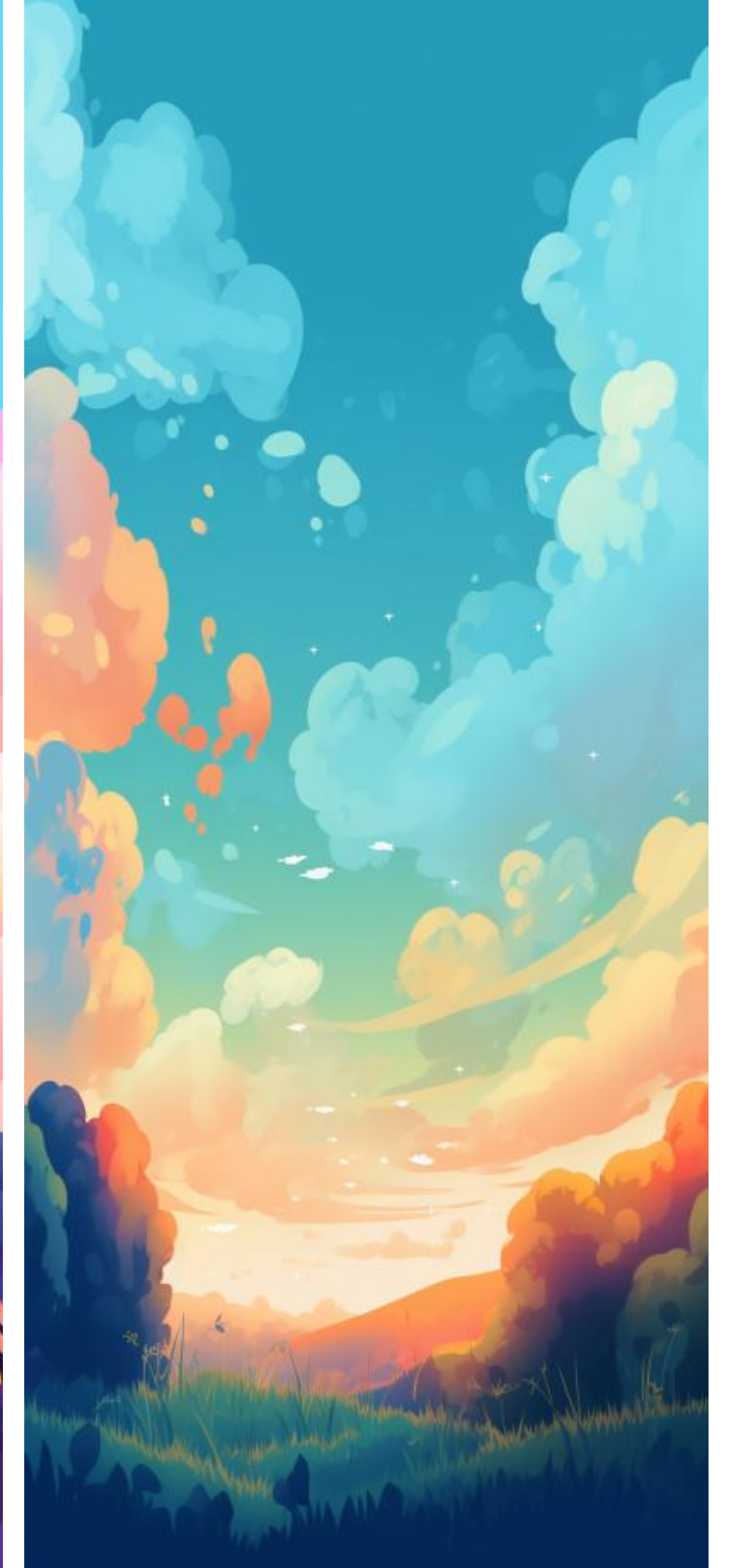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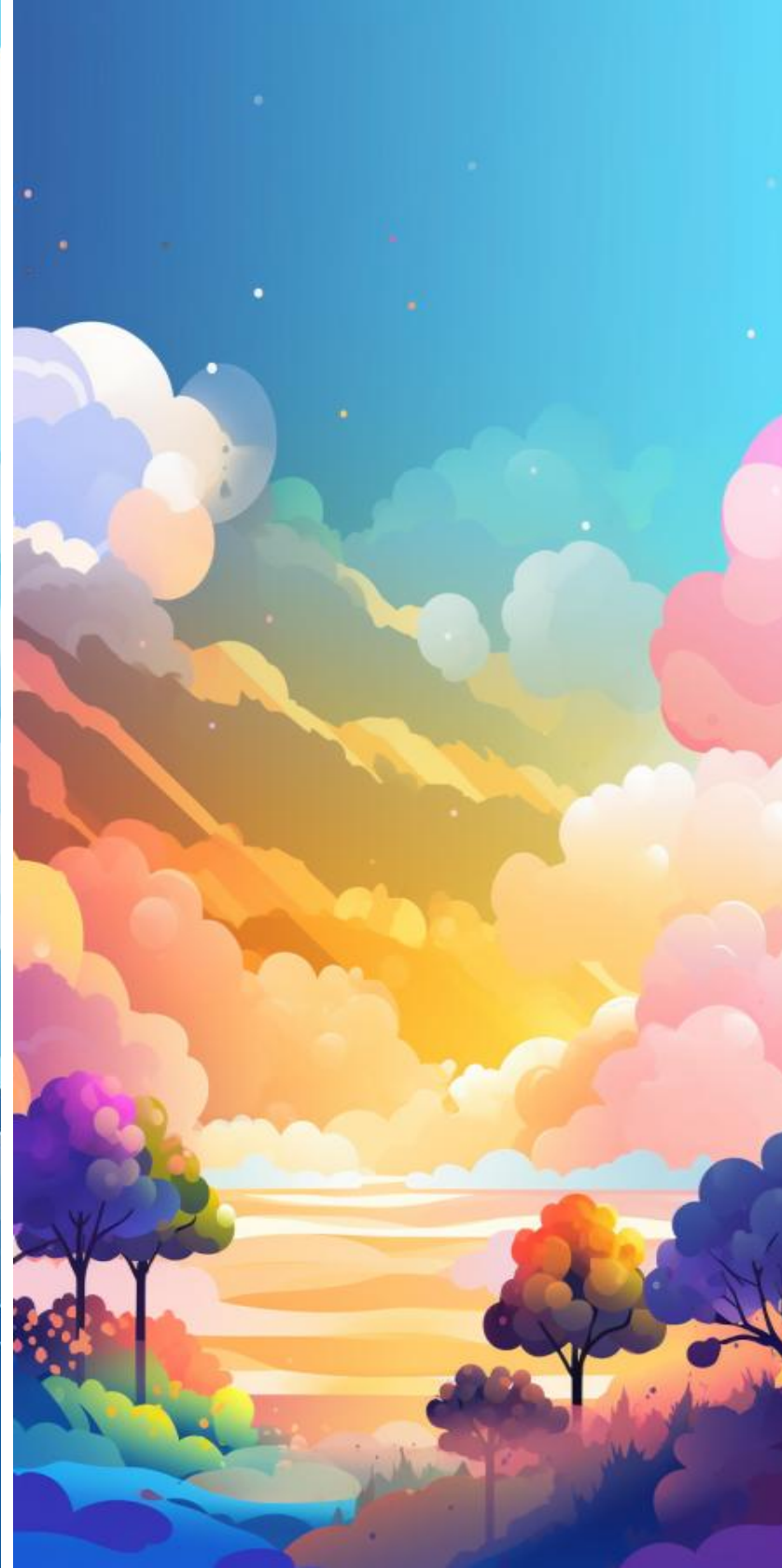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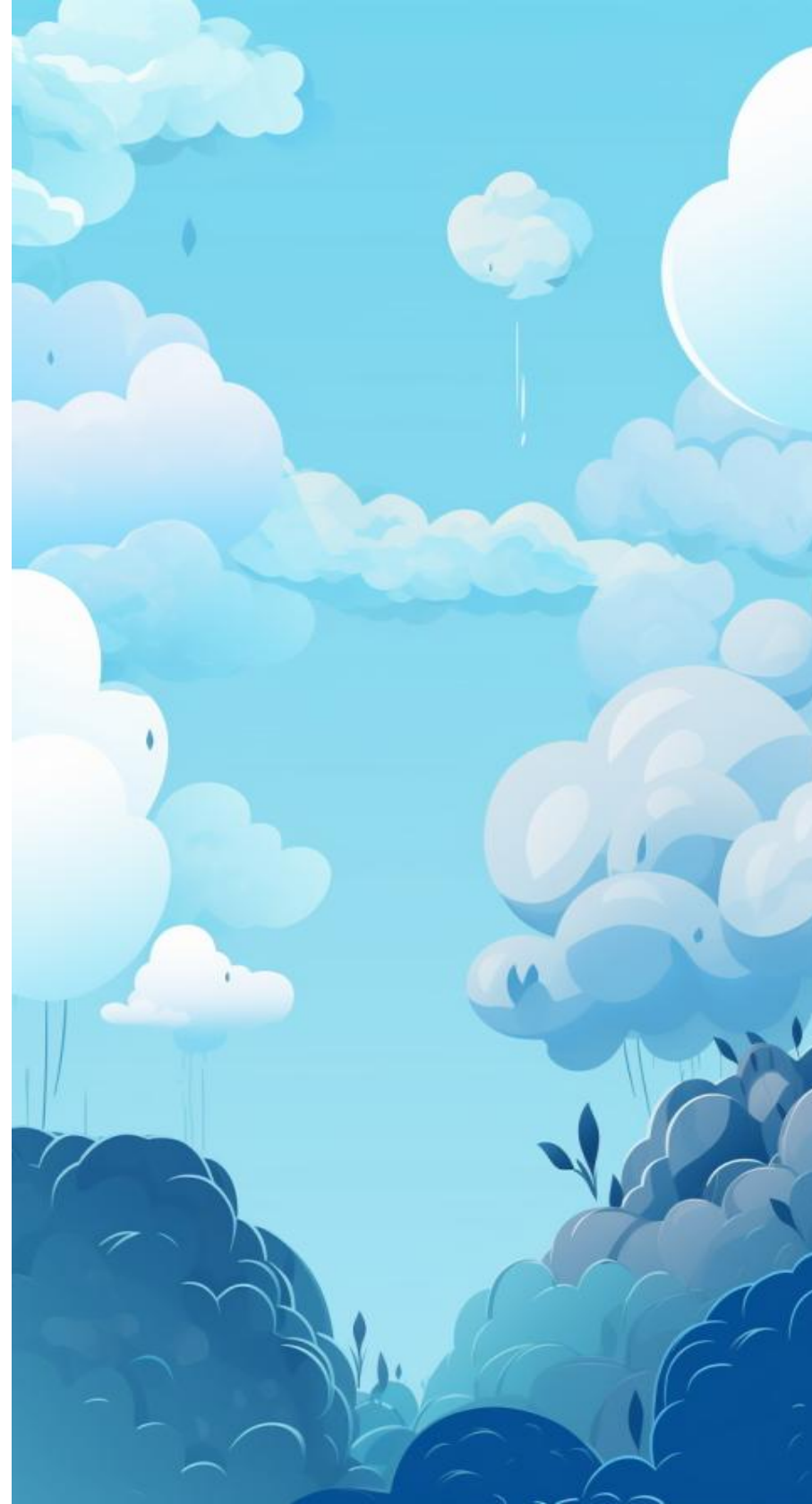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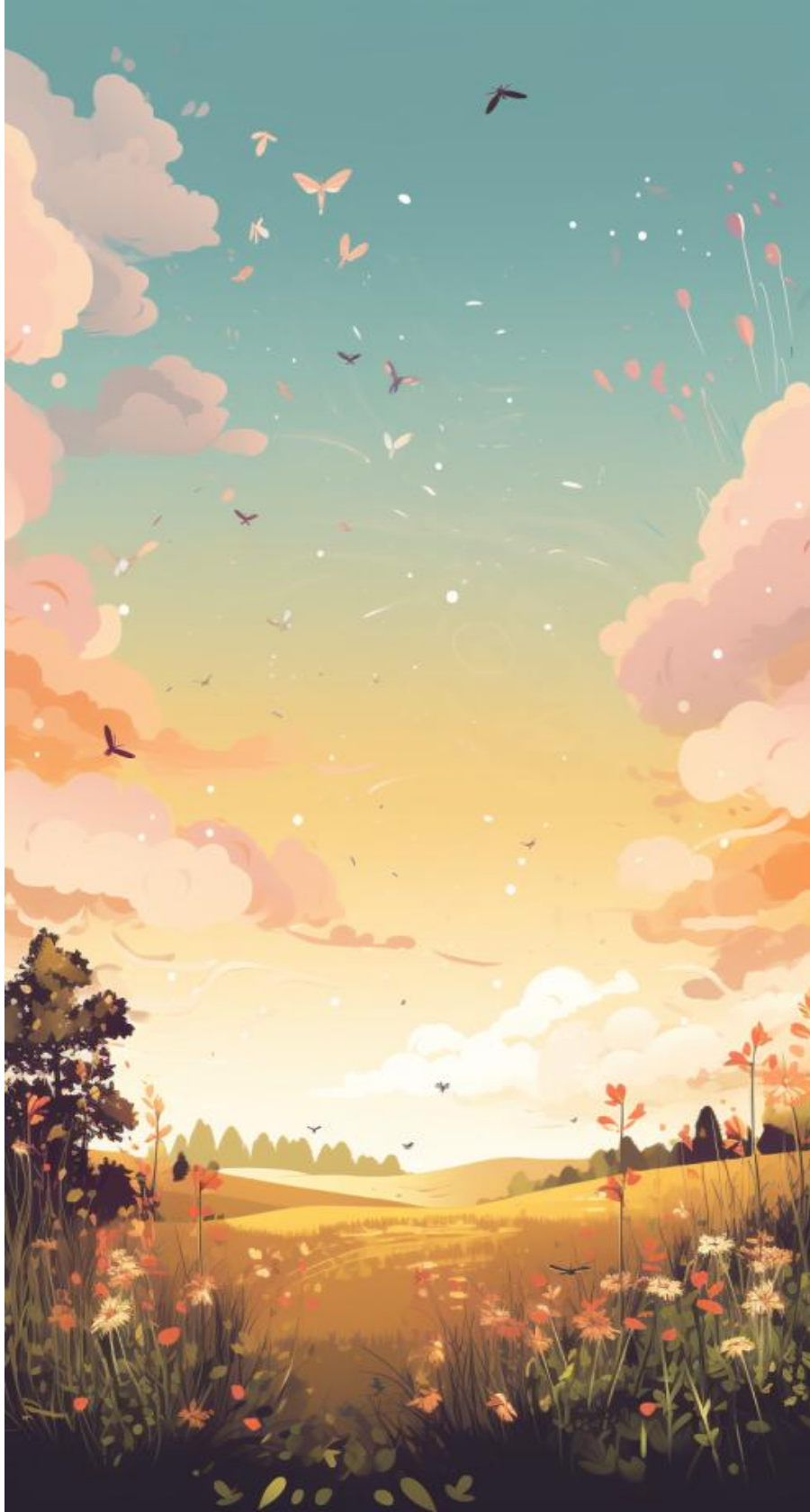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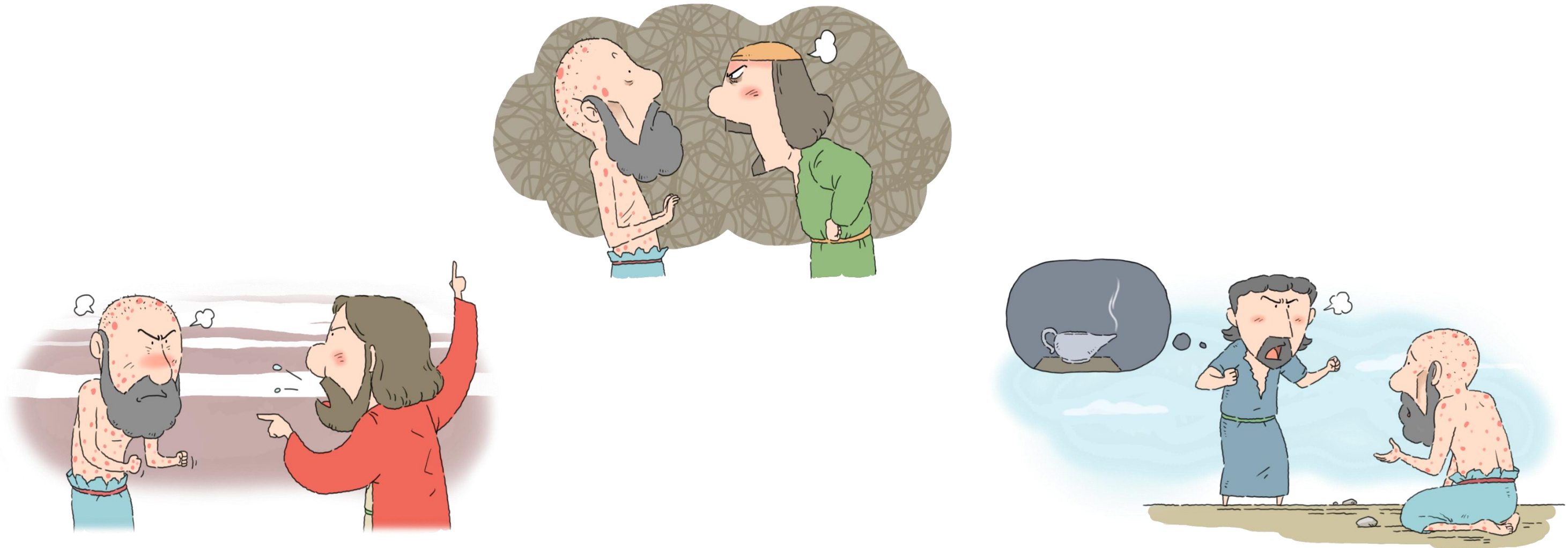
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?

욥기 26장 1-14절

가만히 하늘을 바라 본 적이 있나요?



욥의 친구 세 명은 돌아가면서
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욥을 타일렀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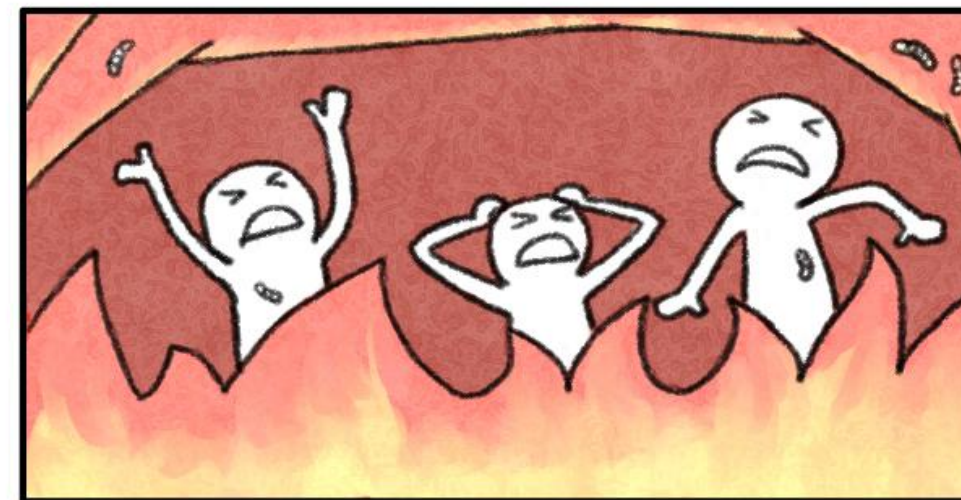
친구의 날카로운 말에
욥은 위로받기는커녕 답답한 마음만 커졌어요.
그들의 지혜는 욥에게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.



욥은 하나님이 큰 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,
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했어요.



하늘과 바다, 비와 구름, 해와 달은 물론,
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**모두 다스리시는**
하나님을 누가 감히 다 알 수 있겠냐?고 물었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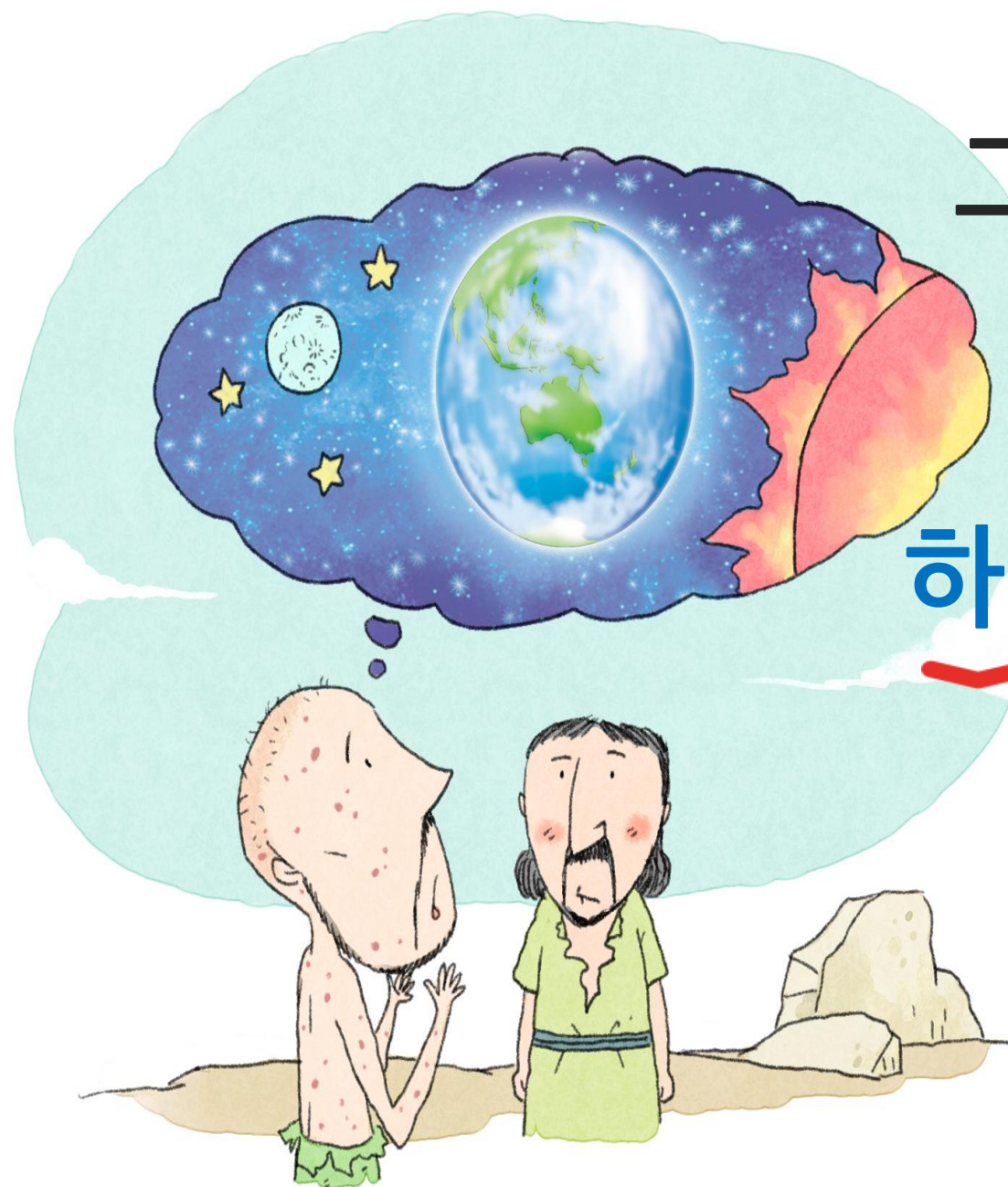
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시고,

구름 속에 물을 넣으시고,

그 무게 때문에 구름이 터지지 않도록 하시고,

호흡으로 흐린 하늘이 맑게 개는 일은

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중 극히 일부분이에요.



하나님은 우리의 **생각**과 **능력**을 **뛰어넘는** 분이예요!





우리 함께 **하나님**의 놀라운 **힘**과 **능력**을
인정하고 크신 **하나님**을 **찬양**해요!

